
		설 명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		배포일자	2021년 10월 13일(수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재정관리담당관	담당자	• 부채리스크관리담당 이선희 ☎440-1671 • 담 당 자 문성미 ☎440-1673 • 공기업관리담당 김영구 ☎440-1691 • 담당자 장원준 ☎440-1692	
사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일 시				

〈인천시 국정감사 관련〉 「인천시와 인천시 산하기관, 부채 증가 심각한 수준」 문제 제기에 대한 설명자료

- 행안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‘17년 21.9% → ‘20년 13.7%로 대폭 개선 -
- 자료상 부채 증가는 임시 부채, 우발부채 요인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 -
- 산하기관의 경우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이 일시적으로 부채에 계상됐기 때문 -

10.12.(화)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, < 인천시와 인천시 산하기관, 부채 증가 심각한 수준 >과 관련한 설명자료입니다.

□ 국감에서 제기된 문제점

- 2018년 7월 박남춘 시장 취임 이후 매년 감소하던 인천시 총 부채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음.

* 2018년 2조 8,793억원 -> 2019년 3조 2,148억원 -> 2020년 3조 3,506억

- 인천광역시 산하 공기업 부채 상황도 심각함. 인천환경공단
의 경우 2018년 460.2%였던 부채비율이 2020년 533.8%까지
급증하는 등 대부분 산하기관들의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나
대책마련이 시급함

□ 설명 내용

< 인천광역시 부채 관련 >

- 행정안전부 공식 재정건전성 관리지표인 예산대비 채무비율상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2017년 21.9%에서 2020년 13.7%로 대폭 개선된 상태임
- 다만, 국감 요구자료에는 회계기준상 매각선수금처럼 임시 부채로 잡히는 금액, 도화구역 개발사업 등 과거 진행사업의 정산과정에서의 우발부채 요인들이 신규 부채로 계상되면서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이중 도화구역 개발사업은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, 매각선수금 부채는 2022년 잔금 납부로 자동 해소되면 향후 부채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임

< 인천광역시 산하기관 부채 관련 >

-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시설공단은 시의 환경기초시설 및 체육·공원시설을 위탁받아 대행 운영하고 있는데, 매년 결산시점에서 발생하는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이 일시적으로 부채에 계상되고 있어 부채 비율이 높은 것처럼 보임

- 인천환경공단외의 경우 2020년 기준 부채가 80억 원(부채비율 534%)으로 되어 있으나, 시 대행사업비 미지급금 등이 반납돼 75억 원(부채비율 △499%)의 부채가 소멸되면서 2021년 9월 기준 부채잔액은 5억 원(부채비율 35%)임
- 또한, 인천시설공단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부채가 144억 원(부채비율 209%)으로 되어 있으나, 시 대행사업비 미지급금 등이 반납돼 140억 원(부채비율 △203%)의 부채가 소멸되면서 2021년 9월 기준 부채잔액은 4억원(부채비율 6%)임
- 향후, 공단의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제도 개선을 검토해 부채 발생 축소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노력할 계획임